

##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소득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의 매개 역할 탐구

김 영 주\*

동의대학교 심리학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계층 이동성의 둔화는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객관적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주관적 소득 불평등 인식이 개인의 신념이나 삶의 질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지만,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상향적 사회계층 이동 경험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매개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국(연구 1:  $N = 399$ )과 한국(연구 2:  $N = 1,000$ )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한 경험은 소득 불평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으며(연구 1 & 연구 2), 이러한 관계는 사회계층에 대한 낮은 본질주의적 신념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계층 이동 경험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며, 불평등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종합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계층 이동성, 소득 불평등 지각,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주관적 소득 불평등

\* 교신저자: 김영주, 동의대학교 심리학과,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051-890-1206, E-mail: [youngjukim@deu.ac.kr](mailto:youngjukim@deu.ac.kr)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심화된 소득 불평등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약 76%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에 속한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2%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cel et al., 2022). 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와 그로 인한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 확대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Huang et al., 2019), 한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OECD, 2020). 실제로 최근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50%보다 약 14배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준다(Chancel et al., 2022). 다양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은 범죄율 증가,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 기대수명 감소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황선재, 2015; Buttrick & Oishi, 2017; Wilkinson & Pickett, 2009),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렇듯 소득 불평등은 사람들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Gimpelson & Treisman, 2018; Jachimowicz et al., 2023; Norton & Ariely, 2011).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Chambers et al., 2014) 과소평가하며(Norton & Ariely, 2011), 2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실제 소득 분포와 지각된 소득 분포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다(Hauser & Norton, 2017). 또한, 객관적 불평등(실제 불평등 수준)과 주관적 불평등(개인이 지각한 불평등 수준)의 상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stillo et al.,

2022; García-Castro et al., 2022; Schmalor & Heine, 2022a).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불평등이 객관적 불평등 수준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Willis et al., 2022).

중요한 것은, 실제 불평등 수준보다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탐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wealth)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객관적 불평등 수준보다 사람들이 지각하는 불평등 인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e.g., Engelhardt & Wagener, 2014). 또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각은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Klebl & Jetten, 2024)와 같은 사회적 태도뿐 아니라, 경쟁심(Sommet et al., 2023), 정서지능(Schmalor & Heine, 2022b), 비윤리적 행위(To et al., 2023), 사회적 신뢰(강성익, 구자훈, 2020; 김진현, 2021) 등 인지, 정서, 및 행동 반응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황선재, 계봉오, 2018; Gimpelson & Treisman, 2018; Hauser & Norton, 2017)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Du & King, 2021), 특히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선행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릴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는 상향 이동 경험이 소득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인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계층에 대한 신념의 역할을 탐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사회계층 이동 경험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민

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심리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사회계층의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개인의 어릴적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성인기에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Chen et al., 2022)–경험이 소득 불평등을 덜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계층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다소 낮다(Alesina et al., 2018.; Alesina & La Ferrara, 2005; Bjørnskov et al., 2013; Jaime-Castillo & Marqués-Perales, 2014). 예를 들어, 이동성이 높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유층 과세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Alesina & La Ferrara, 2005; Dabalen et al., 2015).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 격차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Shariff et al., 2016). 비슷하게, 실험에서 소득 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은, 소득 이동 가능성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갖도록 유도된 참가자들보다 사회의 소득 격차를 더 수용할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hariff et al., 2016).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서 처음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1세대 부유층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고소득자들보다 소득 불평등을 수용하는 경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n et al., 2023). 이러한 결과들은 상향 계층 이동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덜 심각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슷하게,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생각보다 상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덜 적극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다(Cruces et al., 2013; Fehr et al., 2022; Hvidberg et al., 2023; Karadja et al., 2017). 예를 들어, 소득 분포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소 추정한 사람들에게 실제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게 했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e.g., Karadja et al., 2017). 반대로, 자신의 위치를 과대추정한 사람들에게 실제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Cruces et al., 2013). 또한, 실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높은 지위를 조작하는 것 역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덜 찬성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Brown-Iannuzzi et al., 2015). 이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계층 이동성의 영향을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층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종합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주관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거주하거나 이동 가능성에 대한 높은 지각은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로, 사회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여 이러한 인식적 측면이 소득 불평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계층 이동에 대한 개인의 실제 '경험적 측면'이 불평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상향 계층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Cohn et al., 2023), 이 연구는 소득 분포에서 상위 5%에 맞먹는 최상위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은 사회계층 이동의 정도에 대부분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회계층 이동은 상향 이동(upward mobility)과 하향 이동(downward mobility)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하나의 사회계층에서 다른 사회계층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질적으로 매우 다른 경험을 수반하고, 그 결과 역시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이동성의 크기나 정도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층 이동성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유의한 관계가 이동의 방향과 상관 없이 나타나는 결과인지, 상향 이동성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층 이동성을 생각할 때 현재 계층보다 낮아지는 하향 이동보다는 높아지는 상향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e.g., Davidai & Gilovich, 2015; 2016).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행 연구 결과는 상향 이동 지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으나, 이동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지각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 자체에 대한 주관적 지각'보다는 이와 관련된 태도, 예컨대 재분배 정책이나 부자증세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불평등 자체에 대한 실제 태도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Shariff et al., 2016). 따라서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는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넘어,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계층 이동 경험을 측정하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것이며, 정책이

아닌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 상향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매개효과 탐색

추가로, 본 연구는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소득 불평등 지각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회계층에 대한 내재이론의 역할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categories)이 사회계층의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심리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란,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Gelman, 2003). 이러한 신념은 특정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이 해당 범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가정한다. 본질주의적 신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속성(예: 성격, 지능)이나 사회적 범주(예: 인종, 젠더)가 고정되어 있고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관점이다(Haslam et al., 2000). 예를 들어, 지능이나 성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는 개인차가 있는데(Dweck & Yeager, 2019),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속성이 타고난 것이고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고 믿는다(Dweck et al., 1995; Levy et al., 2001).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주에 관한 본질주의 관점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 될 자격(membership)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일생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Haslam et al., 2000; Keller, 2005; Williams & Eberhardt, 2008). 반면 사회적 범주에 대한 비본질주의적(nonessentialist) 관점은 이러한 자격이 생득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바라본다(Bastian & Haslam, 2006; Haslam et al., 2004; Williams & Eberhardt, 2008).

이러한 본질주의 이론은 사회계층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Kraus & Keltner, 2013), 사람들은 사회계층 범주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믿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보다 강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계층 간 경계를 더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신념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에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e.g., Kraus & Keltner, 2013; Kraus & Tan, 2015; Tan & Kraus, 2015; Zhao, Du et al., 2021; Zhao, Chen et al., 2021).

위와 같은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 개인의 삶에서 어떤 속성이나 사회적 범주에 변화가 있었거나 그러한 변화를 지각한 사람들이 해당 속성과 범주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주의적 믿음은, 변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장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지된 사람들에 비해,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계층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변화 가능하고 유연한 개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을 약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믿음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Kraus와 Tan(2015)은 연구 참가자들을 두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여 사회계층이 유전적 요인에 근거를 둔다는 믿음을 활성화 시키거나, 사회계층 범주가 유전적 요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믿음을 활성화하였다. 연구 결과, 후자에

속한 참가자들은 미국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을 훨씬 높게 추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회계층에 대한 비본질주의적 신념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높은 지각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회계층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계층이 고정되어 있다는 본질주의적 믿음을 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 가설에 이론적 근거를 더해준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상향 이동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상향 사회경제적 지위로의 이동에 대해 높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믿는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더 기대하였다(Browman et al., 2022). 그리고 이러한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이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증진하여 실제로 높은 학업성취로 연결되었다(Browman et al., 2017; Browman et al., 2019; Browman et al., 2022). 이는 상향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미래 자신의 사회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로서, 실제로 상향 이동 했다는 경험은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의 약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계층에 대한 낮은 본질주의 신념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의 변화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감을 통해 설명되었다(Zhao, Chen et al., 2021). 또한, 소득 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미래 자신 혹은 자녀의 소득 상승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낙관적 인식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더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Shariff et al., 2016), 심지어 높은 수준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Cheung, 2016). 이러한 결과들은 사

회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믿음, 즉 상대적으로 낮은 본질주의적 신념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과 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덜 심각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은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 상향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을 약하게 지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

### 본 연구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로,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연구 1)과 한국(연구 2)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서구 문화권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두 번째 연구 가설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 연구 1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1에서 사용된 자료는 프롤리픽(Prolific)을 통해 미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연령을 잘못 기입한(“5”세로 응답) 한 명의 응답치를 제외하고 총 399명의 응답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여성 198명, 남성 197명, 응답하고 싶지 않음 4명;  $M_{연령} = 41.33$ ,  $SD_{연령} = 12.17$ ,  $Range_{연령}$ : 19~69세; White/Caucasian 294명, African American 66명, Latinx 18명, Asian 30명, Native American 14명, Pacific Islander 2명, Other 13명).<sup>2)</sup> 본 자료는 불평등에 대한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된 자료이며, 사전에 분석에서 제외할 응답치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응답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G\*Power 프로그램(version 3.1; Faul et al., 2009)을 통해 실시한 민감도(sensitivity) 분석 결과, 7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399명의 표본은 80%의 검정력을 기준으로  $f^2 = 0.020$  수준의 작은 효과크기까지도 검증 가능한 충분한 수의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사회계층 상향이동

사회계층 이동성은 선행 연구(e.g., Präg & Gugushvili, 2021)에서 사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자신의 어릴적 부모님의 사회계층과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사회계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생각해보십시오. 귀하가 만 15세였을 때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떻습니까?(Think about your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 1) 해당 피험자의 응답치를 포함하여 분석하여도 주요 결과는 동일하였음.
- 2) 인종(race/origin)에 대한 정보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음.

Compared to your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when you were 15, how is your current socioeconomic status?)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1 = 훨씬 더 낮다/much lower, 2 = 더 낮다, 3 = 비슷하다, 4 = 더 높다, 5 = 훨씬 더 높다/much higher) ( $M = 3.16$ ,  $SD = 1.03$ ).

### 주관적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Schmalor과 Heine(2022a)가 개발한 주관적 불평등 척도(Subjective Inequ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돈이 없다.” “경제적 불평등의 전체적인 정도가 매우 높다면 그것은 극도로 불공정하다.”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8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M = 4.79$ ,  $SD = 1.22$ , Cronbach's  $\alpha = .886$ ).

### 통제 변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최종 학력, 및 인종 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은 10개 범주를 제시하여 연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으며(1 = Less than \$15,000, 10 = More than \$185,000;  $M = 6.18$ ,  $SD = 2.57$ ), 최종 학력은 8개 범주를 제시하여 측정 하였다(1 = Less than high school degree, 2 = High school/GED, 3 = Some college, no degree, 4 = Associate degree, occupational, 5 = Associate degree, academic, 6 = Bachelor's degree, 7 = Master's degree, 8 = Professional degree (JD, MD), or Doctoral degree;  $M = 5.25$ ,  $SD = 1.84$ ). 참가자의 인종은 복수로 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White/Caucasian'을 선택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M = 0.74$ ,  $SD = 0.44$ ).

## 결과 및 논의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단순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r = -.170$ ,  $p < .001$ . 즉,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현재 자신의 지위가 더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두 변수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사회계층 상향이동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소득 불평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통제변인을 포함한 다중 회귀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의 통계치는 표 2(왼쪽 열)에 제시하였으며,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를 모두 보고하였다. 본문에 기술한 주요 결과 해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불평등 지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B = -0.201$ ,  $SE = 0.059$ ,  $p < .001$ , 95% CI = [-0.316, -0.086],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계층 변수(성별, 연령, 인종, 가계 소득, 최종 학력)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139$ ,  $SE = 0.062$ ,  $p = .027$ , 95% CI = [-0.262, -0.016]. 즉,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에는 부적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현재 사회계층 수준과는 독립적인 관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참고로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는,  $R^2 = 0.03$ 이고

표 1.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연구 1:  $N = 399$ )

	1	2	3	4	5	6	7	8
1. 사회계층 상향이동	-							
2. 주관적 소득 불평등	-.170***	-						
3. 성별(더미 1)	.068	-.115*	-					
4. 성별(더미 2)	-.045	.091	-.980***	-				
5. 연령	.082	-.188***	-.086	.096	-			
6. 인종	-.170***	-.077	-.013	.013	.118*	-		
7. 가계 소득	.380***	-.172***	.094	-.069	.105*	.041	-	
8. 최종 학력	.171***	.065	-.016	.027	.120*	-.099*	.422***	-

주. 성별(더미 1): 1 = 남성, 0 = 여성 & 응답하고 싶지 않음; 성별(더미 2): 1 = 여성, 0 = 남성 & 응답하고 싶지 않음; 인종: 1 = White/Caucasian, 0 = Others.

\*  $p < 0.05$ , \*\*\*  $p < 0.001$ .

표 2. 회귀 분석 결과(연구 1 & 연구 2)

	연구 1( $N = 399$ )				연구 2( $N = 1,000$ )					
	DV = 주관적 소득 불평등				DV = 주관적 소득 불평등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사회계층 상향이동	-.20*** (0.06)	-.17***	-.14*(0.06)	-.12*	-.09** (0.03)	-.08**	-.10** (0.03)	-.09**	-.07*(0.03)	-.06*
성별(더미 1)			-1.20*(0.59)	-.49*						
성별(더미 2)			-.96(0.59)	-.39			0.13(0.07)	.06	0.10(0.07)	.05
연령			-.02*** (0.01)	-.18***			0.01*** (0.002)	.13***	0.01*** (0.002)	.15***
인종			-.15(0.14)	-.05						
가계 소득			-.08** (0.03)	-.16**			-.03(0.02)	-.04	0.02(0.02)	.04
최종 학력			0.11** (0.04)	.17**			-.02(0.04)	-.02	0.01(0.04)	.01
SES									-.14*** (0.02)	-.22***
정치적 성향									-.16*** (0.03)	-.16***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beta$  =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더미 1): 1 = 남성, 0 = 여성 & 응답하고 싶지 않음; 성별(더미 2): 1 = 여성, 0 = 남성 & 응답하고 싶지 않음; 인종: 1 = White/Caucasian, 0 = Others; SES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p < 0.05$ , \*\*  $p < 0.01$ , \*\*\*  $p < 0.001$ .

$f^2 = 0.031$ 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Cohen, 1988).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자료에서 확인한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연구 2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2는 국내 온라인 조사 기관 중 하나인 엠브레인(Embrain)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별과 연령집단을 균등 할당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여성 참가자 50.00%;  $M_{연령} = 44.23$ ,  $SD_{연령} = 13.66$ ,  $Range_{연령}$ : 20~69세). 지역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혼재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자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조사 업체 내부 방침에 따라 적립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본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 다른 정보들도 데이터 수집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분석에서 제외할 응답치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응답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G\*Power를 활용한 민감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설계인 7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1,000명의 표본은 80%의 검정력을 기준으로  $f^2 = 0.010$  수준의 작은 효과크기까지도 검증 가능한 충분한 수의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종속변수인 주관적 소득 불평등은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사회계층 상향이동:  $M = 2.97$ ,  $SD = 1.02$  & 주관적 소득 불평등:  $M = 5.01$ ,  $SD = 1.06$ , Cronbach's  $\alpha = .892$ ).

####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Kraus와 Keltner (2013)가 개발한 사회계층 범주에 대한 본질주의 척도(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Categories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사회계층은 겉모습만 보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유전자가 한 사람의 사회계층을 결정할 수 없다(역문항).”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역문항을 역산한 뒤,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M = 4.34$ ,  $SD = 0.89$ , Cronbach's  $\alpha = .854$ ).

#### 통계 변인

먼저 연구 1에서 측정한 성별, 연령, 소득, 최종 학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소득은 8개 범주를 제시하여 연평균 가계소득을 측정하였으며(1 = 1,500만원 미만, 8 = 1억 5,000만원 이상;  $M = 4.82$ ,  $SD = 1.67$ ), 최종 학력은 8개 범주를 제시하여 측정 하였다(1 = 무학,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 5 = 전문대학, 6 = 4년제 대학, 7 = 대학원(석사 과정), 8 = 대학원(박사 과정);  $M = 5.73$ ,  $SD = 0.95$ ).

추가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1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참가자는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였다(1 = 매우 진보, 4 = 중도, 7 = 매우 보수;  $M = 3.85$ ,  $SD =$

1.10). SES는 MacArthur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Adler et al., 2000). 이 측정 도구는 10단계의 사다리 그림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사다리의 맨 꼭대기(=10)는 최상위 사회경제적 위치를, 사다리 맨 밑(=1)은 최하위 사회경제적 위치를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1과 10범위 내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곳의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M = 5.16$ ,  $SD = 1.70$ ).

### 결과 및 논의

#### 분석 절차

연구 2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을 통해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4.2(Model 4)를 사용하여 5,000개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에 기반한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Hayes, 2017).

####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2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단순 상관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r = -.082$ ,  $p = .009$ . 또한,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r = -.076$ ,  $p = .016$ ,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r = .476$ ,  $p < .001$ .

####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불평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연구 2:  $N = 1,000$ )

	1	2	3	4	5	6	7	8	9
1. 사회계층 상향이동	-								
2. 주관적 소득 불평등	-.082**	-							
3. 본질주의 신념	-.076*	.476***	-						
4. 성별	.080*	.055	-.002	-					
5. 연령	.129***	.112***	.032	-.006	-				
6. 가계 소득	.188***	-.065*	.043	-.041	.028	-			
7. 최종 학력	.048	-.041	-.030	-.132***	-.003	.262***	-		
8. SES	.193***	-.222***	-.059	-.004	.079*	.398***	.268***	-	
9. 정치적 성향	.033	-.180***	-.063*	-.086**	.058	.020	-.081*	.081*	-

주. 성별: 1 = 여성, 0 = 남성; SES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참가자의 사회계층 상향이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 소득 불평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의 통계치는 표 2(오른쪽 열)에 제시하였으며,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를 모두 보고하였다. 연구 1에서와 같이, 본문에 기술한 주요 결과 해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B = -0.086$ ,  $SE = 0.033$ ,  $p = .009$ ,  $95\% CI = [-0.151, -0.021]$ ,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계층 변수(성별, 연령, 가계 소득, 최종 학력, SES, 정치적 성향)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066$ ,  $SE = 0.033$ ,  $p = .043$ ,  $95\% CI = [-0.151, -0.021]$ . 즉, 사회계층 상향이동의 경험은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현재 사회계층 수준, 및 정치적 성향과 독립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 하였다. 참고로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는,  $R^2 = 0.01$ 이고  $f^2 = 0.010$ 으로, 매우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Cohen, 1988). 또한 연구 1과 연구 2의 모든 회귀분석 모형에서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6에서 -.17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작은-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표 2).

### 사회계층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서 본질주의적 신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계층 이동성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본질주의 신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그림 1), 상향 이동은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과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통제변인 미포함 모형:  $B = -0.07$ ,  $SE = 0.03$ ,  $p = .016$ ,  $95\% CI = [-0.12, -0.01]$  & 통제변인 포함 모형:  $B = -0.07$ ,  $SE = 0.03$ ,  $p = .011$ ,  $95\% CI = [-0.13, -0.02]$ ),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은 사회계층 상향이동을 통제하고서도 주관적 소득 불평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통제변인 미포함 모형:  $B = 0.57$ ,  $SE = 0.03$ ,  $p < .001$ ,  $95\% CI = [0.50, 0.63]$  & 통제변인 포함 모형:  $B = 0.54$ ,  $SE = 0.03$ ,  $p < .001$ ,  $95\% CI = [0.48, 0.60]$ ). 참고로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는(= 총효과)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을 통제하면(= 직접효과) 유의하지 않았다(통제변인 미포함 모형:  $B = -0.05$ ,  $SE = 0.03$ ,  $p = .099$ ,  $95\% CI = [-0.11, 0.01]$  & 통제변인 포함 모형:  $B = -0.03$ ,  $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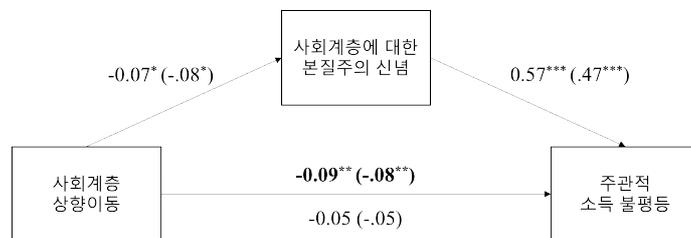


그림 1.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 관계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의 매개효과(연구 2).  
 주.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그렸음. 표준화 회귀계수는 괄호안에 표시하였으며 총효과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음.

\*  $p < 0.05$ , \*\*  $p < 0.01$ , \*\*\*  $p < 0.001$ .

0.03,  $p = .354$ , 95% CI = [-0.08, 0.03]).

마지막으로,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 관계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계층 상향 이동 경험은 사회계층에 대한 낮은 본질주의 신념을 통해 낮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 간접효과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95% CI = [-0.07, -0.01]. 이러한 간접효과는 6개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간접효과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5% CI = [-0.07, -0.01],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 신념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 종합 논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불평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심을 촉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맥락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실제 소득 불평등의 객관적 수준과는 별개로, 개인이 지각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심리적 과정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사회계층 이동이 소득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신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사회경제적 이동 경험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인 미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릴 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아졌다는 인식이 소득 불평등 수준에 관한 지각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의 부적 관계에 관한 연구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어릴 때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달성했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소득 불평등에 관해 다소 관대한(tolerant)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연구 1)과 한국인(연구 2)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계층 상향이동과 주관적 소득 불평등 간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 요인으로서, 사회계층에 대한 내재이론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상향 이동은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과 부적 관계를 가지며, 본질주의적 신념은 주관적 소득 불평등 지각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계층 상향이동이 본질주의적 신념을 통해 주관적 불평등 지각에 미치는 부적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 즉, 부모님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한 경험은 사회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소득 불평등을 덜 심각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 결과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회계층 이동 경험에 따라 사회계층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하향 이동보다 상향 이동 경험이

사회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더 높은 기대, 즉 본질주의 신념의 약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하향 이동과 상향 이동 모두 사회계층이 '이동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에, 본질주의 신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계층 상향이동은 사회계층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본질주의 신념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낮은 불평등 지각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향이동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 이동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사회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더 높은 기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결과는 향후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단순히 이동의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질적으로 상이한 경험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심리적·행동적·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계층 이동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이동의 양적 변화나 변동 가능성뿐 아니라, 상향 이동인지 하향 이동인지와 같은 이동의 방향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계층 이동 가능성의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e.g., Cohn et al., 2023; Kraus & Tan, 2015). 이러한 접근은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동일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제약을 준다. 본 연구는 계층 이동 연구에서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적 경험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사회계층의 상향 이동이 개인에게는 긍정적인 경험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특히 소득 불평등 완화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향 이동을 경험한 개

인이 경제적 불평등을 비교적 용인하거나 수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향 이동 이후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보수 정당에 대한 투표 행동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는 모두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역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낮지 않은 사회로,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세대 간 상향 계층 이동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전반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계층에 대한 신념과 소득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또한 이러한 맥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에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된 다른 국가에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71%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United Nations, 2020), 이러한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Chancel et al., 2022; OECD, 2019; Ravallion, 2014). 즉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심한 불평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

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맥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회계층 상향 이동 경험의 효과가 약화되는지, 혹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동일한 사회라도, 불평등이 어디에서 집중되는지에 따라 그 심리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고소득층이 불평등을 주도하는 사회와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Blesch et al., 2022), 불평등의 정도(total level of inequality)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나 형태(shape of income distribution)에서의 지역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 및 지역 내 비교 연구를 모두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여 불평등에 관한 풍부한 학문적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2).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단순히 불평등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구성되는지—즉, 불평등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프레임िंग을 통해 전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alker et al., 2021). 또한 개인이 느끼는 공정성의 기준 역시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armans et al., 2017).

나아가 문화의 역할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유동적으로 맺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즉,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고 관계 선택의 자유도가 높은 문화적 맥락—에서 소득 불평등이 지각되는 방식은, 인간관계를 보다 고정적이고 제

약된 것으로 보는 문화적 맥락과는 심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s et al., 2024). 즉, 관계 이동성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규범은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다양하게 노출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상에서 접하는 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인식, 나아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각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적 요인이 불평등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론적·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Oishi et al., 202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측면에서 계층 이동을 측정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층 이동 측정 방식으로, 사회계층 이동의 영향을 탐구한 선행 연구들은 보통 참가자가 0세에서 18세 사이에 경험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삼아왔다(e.g., Côté et al., 2021; Cohn et al., 2023).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층 이동을 측정할 필요도 있는데, 세대 내(intra-generational) 관점에서 계층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0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모두 측정하여 주관적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면 계층 이동성의 영향에 관해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층 이동 경험에 수반되는 객관적인 지표(예: 소득의 변화, 직업 지위의 변화 등)도 함께 측정하여 계층 이동 경험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영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개인의 계층 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으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이동성에 관한 지각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동성에 관한 지각은 서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지만 스스로는 상향 이동했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반대로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며 스스로 상향 이동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회계층에 대한 내적 믿음과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의 계층 이동 경험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함께 측정하여 다층적인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두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의 사회계층 이동 경험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 저자소개

김영주는 동의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계층의 심리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강성익, 구자훈 (2020).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서울시

권역생활권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4), 217-231.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황선재, 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5-25.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Alesina, A., & La Ferrara, E.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897-931.

Alesina, A., Stantcheva, S., & Teso, E. (2018).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8(2), 521-554.

Bastian, B., & Haslam, N. (2006).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stereotype endors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28-235.

Bjørnskov, C., Dreher, A., Fischer, J. A., Schnellenbach, J., & Gehring, K. (2013). Inequality and happiness: When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reality do not matc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91, 75-92.

Blesch, K., Hauser, O. P., & Jachimowicz, J. M. (2022). Measuring inequality beyond the Gini coefficient may Clarify conflicting findings. *Nature Human Behaviour*, 6(11), 1525-1536.

Browman, A. S., Destin, M., Carswell, K. L., & Svoboda, R. C. (2017). Perceptions of

- socioeconomic mobility influence academic persistence among low socioeconomic status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2, 45-52.
- Browman, A. S., Destin, M., Kearney, M. S., & Levine, P. B. (2019). How economic inequality shapes mobility expectations and behaviour in disadvantaged youth. *Nature Human Behaviour*, 3(3), 214-220.
- Browman, A. S., Svoboda, R. C., & Destin, M. (2022). A belief in socioeconomic mobilit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cademically motivating identities among low-socioeconomic status youth. *Self and Identity*, 21(1), 42-60.
- Brown-Iannuzzi, J. L., Lundberg, K. B., Kay, A. C., & Payne, B. K. (2015). Subjective status shapes political pre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26(1), 15-26.
- Buttrick, N. R., & Oishi, S. (2017).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3), e12304.
- Castillo, J. C., García-Castro, J. D., & Venegas, M. (2022).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Concepts, associated factors and prospects of a burgeoning research agenda. *Social Psychology*, 37(1), 180-207.
- Chambers, J. R., Swan, L. K., & Heesacker, M. (2014). Better off than we know: Distorted perceptions of incomes and income inequality in America. *Psychological Science*, 25(2), 613-618.
- Chancel, L., Piketty, T., Saez, E., Zucman, G., Bajard, F., Burq, F., Neef, T., Robilliard, A.-S., Moshrif, R., Duflo, E., & Banerjee, A. (2022).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r2022.wid.world/>
- Chen, E., Brody, G. H., & Miller, G. E. (2022). What are the health consequences of upward mobi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3(1), 599-628.
- Cheung, F. (2016). Can Income Inequality be Associated With Positive Outcomes? Hope Mediates the Positive Inequality - Happiness Link in Rural China.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4), 320-33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hn, A., Jessen, L. J., Klačnja, M. & Smeets, P. (2023). Wealthy Americans and redistribution: The role of fairness preferen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5, 104977.
- Côté, S., Stellar, J. E., Willer, R., Forbes, R. C., Martin, S. R. & Bianchi, E. C. (2021). The Psychology of Entrenched Privilege: High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From Affluent Backgrounds Are Uniquely High in Entitl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7(1), 70-88.
- Cruces, G., Perez-Truglia, R., & Tetaz, M. (2013).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8, 100-112.
- Dabalén, A., Parinduri, R. A., & Paul, S. (2015). The effects of the intensity, timing and persistence of personal history of mobility on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transition countries. *Economics of Transition*, 23(3), 565-595.
- Davidai, S., & Gilovich, T. (2015). What goes up apparently needn't come down: Asymmetric predictions of ascent and descent in ranking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8(5), 491-503.
- Davidai, S., & Gilovich, T. (2016). The tide that lifts all focal boats: Asymmetric predictions of ascent and descent in ranking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1(1), 7-20.

- Du, H., & King, R. B. (2022). What predicts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The roles of actual inequ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fairness consider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1), 19-36.
- Dweck, C. S., & Yeager, D. S. (2019). Mindsets: A view from two era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4*(3), 481-496.
- Dweck, C. S., Chiu, C. Y., & Hong, Y.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4), 267-285.
- Engelhardt, C., & Wagener, A.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838.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ehr, D., Mollerstrom, J., & Perez-Truglia, R. (2022). Your place in the world: Relative income and global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4*(4), 232-268.
- García-Castro, J. D., García-Sánchez, E., Willis, G. B., Castillo, J. C., & Rodríguez-Bailón, R. (2022).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measur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objectiv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Social Psychology, 53*(5), 277-291.
-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Origins of essentialism in everyday though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impelson, V., & Treisman, D. (2018). Misperceiving inequality. *Economics & Politics, 30*(1), 27-54.
- Haslam, N., Bastian, B., & Bissett, M. (2004). Essentialist beliefs about personality and their implic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2), 1661-1673.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 Hauser, O. P., & Norton, M. I. (2017). (Mis)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1-2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uang, B., Morgan, P. J., & Yoshino, N. (2019). *Demystifying rising inequality in Asi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Hvidberg, K. B., Kreiner, C. T., & Stantcheva, S. (2023). Social positions and fairness views on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90*(6), 3083-3118.
- Jachimowicz, J. M., Davidai, S., Goya-Tocchetto, D., Szaszi, B., Day, M. V., Tepper, S. J., ... & Hauser, O. P. (2023). Inequality in researchers' minds: Four guiding questions for study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7*(5), 1534-1561.
- Jaime-Castillo, A., & Marqués-Perales, I. (2014). Beliefs about social fluidity and preferences for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43*(3), 615-633.
- Karadja, M., Mollerstrom, J., & Seim, D. (2017). Richer (and holier) than thou?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improvements on demand for re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2), 201-212.
- Keller, J. (2005). In genes we trust: The biological component of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mechanisms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686-702.
- Klebl, C., & Jetten, J. (2024). Perceived inequality increases support for structural solutions to

- climate chang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2), 225-233.
- Kraus, M. W. & Keltner, D. (2013). Social Class Rank, Essentialism, and Punitive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2), 247-261.
- Kraus, M. W. & Tan, J. J. X. (2015). Americans overestimate social class mo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101-111.
- Levy, S. R., Plaks, J. E., Hong, Y. Y., Chiu, C. Y., & Dweck, C. S. (2001). Static versus dynamic theori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s: Different routes to different desti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2), 156-168.
- Norton, M. I., & Ariely, D. (2011).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1), 9-12.
- Oishi, S., Bak, H. & Caluori, N. (2022). Cultural psychology of inequality: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103-116.
-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89afed1-en>
-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de9480-en>
- Präg, P., & Gugushvili, A. (2021). Subjective social mobility and health in Germany. *European Societies*, *23*(4), 464-486.
- Ravallion, M. (2014). Income inequality in the developing world. *Science*, *344*(6186), 851-855.
- Schmalor, A., & Heine, S. J. (2022a). The Construct of Subjective Economic Inequal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1), 210-219.
- Schmalor, A., & Heine, S. J. (2022b). Subjective economic inequality decreases emotional intelligence, especially for people of high social clas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2), 608-617.
- Shariff, A. F., Wiwad, D. & Akin, L. B. (2016). Income Mobility Breeds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3), 373-380.
- Sommet, N., Weissman, D. L., & Elliot, A. J. (2023). Income inequality predicts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veness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5*(1), 173-191.
- Starmans, C., Sheskin, M. & Bloom, P. (2017). Why people prefer unequal societies. *Nature Human Behaviour*, *1*(4), 0082.
- Tan, J. J., & Kraus, M. W. (2015). Lay theories about social class buffer lower-class individuals against poor self-rated health and negative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3), 446-461.
- To, C., Wiwad, D., & Kouchaki, M. (2023). Economic inequality reduces sense of control and increases the acceptability of self-interested unethic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2*(10), 2747-2774.
- United Nations. (2020). *Inequality—Bridging the divide*.  
<https://www.un.org/en/un75/inequality-bridging-divide#:~:text=This%20shows%20inequality%20is%20neither,and%20varies%20significantly%20across%20countries>
- Walker, J., Tepper, S. J., & Gilovich, T. (2021). People are more tolerant of inequality when it is expressed in terms of individuals rather than groups at the top.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43), e2100430118.
- Willis, G. B., Uchida, Y., Garcia-Castro, J. D. & Takemura, K. (2024). High relational mobility is associated with perceiving more economic inequality in everyday lif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3), 348-359.
- Wilkinson, R. G., & Pickett, K. E. (2009). Income

- inequality and social dysfun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1), 493-511.
- Williams, M. J., & Eberhardt, J. L. (2008). Biological conceptions of race and the motivation to cross raci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1033-1047.
- Willis, G. B., Garcia-Sánchez, E., Sánchez-Rodríguez, A., Garcia-Castro, J. D., & Rodríguez-Bailón, R. (2022). The psychosocial effects of economic inequality depend on its perception. *Nature Reviews Psychology*, 1(1), 301-309.
- Zhao, S., Chen, L., King, R. B., Nie, Y., Du, H. & Chi, P. (2021). When adolescents believe that SES can be changed, they achieve more: The role of growth mindset of 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3, 111104.
- Zhao, S., Du, H., Li, Q., Wu, Q. & Chi, P. (2021). Growth mindset of socioeconomic status boosts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10301.
- 1 차원고접수 : 2024. 09. 02.  
수정원고접수 : 2025. 03. 31.  
최종게재결정 : 2025. 04. 25.

## Upward Mobility an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The Mediating Role of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Youngju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ong-Eui University

Extreme income inequality and limited social class mobility are among the most pressing social issues of our time. While existing research suggest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may exert a stronger influence on individuals' lives than objective inequality,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shape these perception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upward mobility, defined as attaining a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han one's parents, i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whether this association is mediated by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Data from two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Study 1:  $N = 399$ ) and South Korea (Study 2:  $N = 1,000$ )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experiences of upward mobility tended to perceive lower levels of income inequality (Studies 1 & 2). Furthermore,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weaker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Study 2). These findings provide novel psychological insights into how personal mobility experiences shape perceptions of socioeconomic systems and highlight the diverse psychological responses to inequality. Broader theoret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Keywords* : social class mobility, perceived income inequality,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lass, upward and downward mobility, subjective income inequality